

##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7 Key Messages (주요 메시지)

### ASEAN+3 지역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1. ASEAN+3 지역의 경제전망은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회복세와 더불어 개선되어 왔음. 2017년중 GDP 성장률은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가운데 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역내 최대 회원국인 중국 및 일본 경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신흥시장 국에 해당하는 한국, ASEAN-5\* 및 베트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ASEAN 내 개발도상국들은 역내 통합에 따른 수혜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3. 경제성장은 내수부문이 계속 주도하겠으나 최근 수출 회복세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4.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인플레이션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은 향후 지역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5. 정책당국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중에서 금융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외환보유액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 여력은 축소되었음. 글로벌 정책 환경은 한층 불확실해졌음.

### 테마연구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ASEAN+3 경제의 20년

6. 아시아 금융위기는 정책당국이 위기관리 및 대응방안에 관한 시각을 갖게 한 획기적인 사건 (landmark event)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동 위기를 계기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 (CMIM) 이 확립되고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창설되었음.
7. 아시아 금융위기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새겨 볼만한 가치가 있음: 첫째, 정책적 대응은 금융시장 및 자본유출에서 기인하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야 함. 둘째, 국가 간 전염 현상(contagion)의 확산 속도 및 충격 크기에 주목해야 함. 셋째, 한층 유연하고 즉각적인 정책 체계를 갖추어야 함.
8.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위기국들은 그 이후 최초 10년 동안 (1997 – 2006) 경제성장의 발판을 재구축하기 위하여 통화정책 체계 규율 제고, 더욱 신축적인 환율체제로의 전환, 금융감독 체계 강화, 재정 긴축, 기업·금융부문 개혁 등의 주요 경제정책 조정을 단행한 바 있음.
9. 경제 기반이 강화되고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향상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여파는 회원국 경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음.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회원국들은 상호 교역 및 투자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확대의 혜택을 누리는 한편 한층 즉각적인 정책 체계를 운용하면서 글로벌 자금유입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였음.
10. 회원국들은 국내 정책체계 및 충격 흡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ASEAN+3 지역 금융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